

역사 다시 쓰기: "King Edward III" 와 "Samson"

허 윤 덕

(사범대 영어교육과)

〈 차 례 〉

- I. 서론
- II. "King Edward III"의 경우
- III. "Samson"의 경우
- IV. 결론

I. 서론

William Blake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의 그가 평생 추구했던 시적 목표가 소위 모든 예언자들이 추구했던 목표와 동일하다 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의 건설에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모든 비평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태까지 Blake의 이러한 유토피아적 염원이 바로 당대 역사의 비판적 읽기에 근거한 극히 역사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대체로 관과되어 왔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물론 David V. Erdman처럼 역사와 문학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반영의 관계로 보아 역사와 문학 사이의 대응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역사의 문학적 변용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지만, Blake의 *The First Book of Urizen*, *The Book of Ahania*, 그리고 *The Book of Los* 등은 분명 Blake의 본격적인 역사 다시 읽기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역사 다시 읽기의 과정에서 Blake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타락으로서의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의 필요성에 대해서이

다. 당대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로 파악하는 Blake의 유토피아적 염원은 인류 역사의 태동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의 기원을 되짚어 봄으로써 타락한 역사의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Blake는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관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이러한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전통적 시각보다 보다 넓은 시각, 즉 Koch가 'metahistory'라고 한 방법인데, 이것은 오직 걸으로 드러난 인과관계만을 고려하는 현대적 의미의 역사와는 달리 모든 실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통찰하고 있는 포괄적 역사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서나 Milton 등의 비전에 대한 인유를 중복하는 방법이다. 물론 본고에서 다루려는 두 개의 작품은 앞서 얘기한 본격적인 역사 다시 쓰기의 표본이 되는 작품들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작품들이 실린 *Poetical Sketches* 이후 걸으로 보기에 *The 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와 같은 전통적 서정시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일련의 스케치들은 그와 함께 실린 서정시들이 훗날에 그의 대표적 서정시들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앞서 들었던 예언시뿐만 아니라 후기에언시들에서 Blake가 구사하게 될 방법론들에 대한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King Edward III"와 "Samson"을 분석함으로써 Blake가 이 작품들을 통하여 영국의 역사와 성서 그리고 밀튼 (Milton)의 *Samson Agonistes*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Blake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II. "King Edward III"의 경우

성서의 예언자들이나 버질 (Virgil), 스펜서 (Spencer) 그리고 밀튼과 같은 위대한 예언적 시인들처럼 Blake역시 영국 역사를 다룬 스케치인 "King Edward III"를 통하여 전통적으로 용인된 해석에 맞서서 그 나름대로 영국의 역사에 대해 상상적 해석을 시도하

고 있다. 이 스케치는 영국의 자유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이라는 주제를 똑같이 공유하면서, 분명 영국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역사적 과정의 진정한 성격이 Blake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씌어진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영국의 군사적 업적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익스피어식의 역사를 수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역사적 스케치들은 여신의 진정한 성격을 밝혀 내고 자유의 보호자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청중들의 의식을 개혁하려 한다.¹⁾

"King Edward III"의 여섯 개의 장은 영국의 자유 (Liberty)의 실체를 점진적으로 밝혀 가는데, 그 과정은 음유시인(Minstrel)이 부르는 노래 말미에 여신이 현현하면서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이 작품은 에드워드3세가 이제 수행하려는 전투에 대한 그의 주장과 그것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기원으로 시작된다. 이 기원을 통해서 에드워드3세는 자신이 침략자가 아니라 자유를 전파하고 "보이지 않지만, 견디기 어려운 사슬"(i: 13)에 매여 있는 프랑스인들을 해방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전쟁과 승리,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권리를 합리화 하려 한다. 여기서 우리는 Blake의 두 가지 반어적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프랑스인들이 이미 감내하고 있는 구속말고도 더한 구속을 그들에게 가할 것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세계 역사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와 전쟁이 정반대의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1장에서 왕의 연설을 통해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영국인의 법적 권리(the charter'd right of Englishmen)"(i. 9)로 소개된다.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침략전쟁도 바로 신에 의해 인정된 이 권리를 위해 수행된다. 이 연설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적들에겐 자유라는 대의명분이 결여돼 있으며, 따라서 정신적으로 "구속되어 있다"(i. 14). 그래서 적들은 영국인들처럼 "죽음이 넘쳐흐르는 싸

1) Erdman이 Blake의 아이러니를 지적하기까지는 "King Edward III"와 같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스케치들은 Blake가 영국의 군사적 영광을 노래한 작품으로 여겨졌었다 (Cf. David V. Erdman, *Blake: Prophet against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9), pp. 63~83).

움터로 뛰어 들 수”(i. 16) 없으며, 따라서 영국인들에 의해 해방되어야 한다. 왕의 연설은 처음에는 그 논리가 터무니없이 걸만 번지르르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정체가 사실은 전쟁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의 연설이 진실로 논리를 갖추었음을 알게 된다. 자유는 전쟁의 대의명분이면서 동시에 활력소이다. 따라서 자유는 병사들에게 활력을 주며, “각자의 얼굴에서 불꽃처럼 빛나며”, 그리고 “전투를 타오르게 한다”(i. 10~11). 왕은 군사적 영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들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사용하여 병사들에게 미치는 자유의 힘과 영향력을 설파한다. 자유처럼, 군사적 영광 역시 마치 불과 빛처럼 “빛을 발하고”, “타오르며”, “빛나며”, “반짝이면서” 그 영광을 발산하고 지켜보는 이들에게 활력을 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에드워드가 연설로서 주위의 인물들을 기만한 결과에서 오는데, 그의 아들 또한 그 예외의 대상은 아니다.

And thou, my son, be strong: thou fightest for a crown
That death can never ravish from thy brow.
A crown of glory: but from thy very dust
Shall beam a radiance to fire the breasts
Of youth unborn.

에드워드의 충고는 진정 오직 한가지, 즉 자신과 같이 아들을 왕관의 노예로 삼음으로써 아들 대에도 폭정이 영속화되리라는 점만을 의미한다. 더욱이 Gleckner도 지적했듯이 *Paradise Lost*에 대한 인유를 통해 Blake는 에드워드 (Edward) 왕의 관점이 사탄 (Satan)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드러낸다.²⁾ 예를 들어 군사적 영광에 대한 에드워드의 과장된 묘사와 찬미는 “3중 강철로”(i. 19) 가리운 가슴에 대한 언급에서와 같이 타락한 전사들에 대한 밀튼의 묘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왕이 군사적 영웅들과 그 광채가 바라보는 이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2) Robert F. Gleckner, *Blake's Prelude : Poetical Sketch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3), p. 105.

별을 일치시키는 행위는 청중들에게 저승의 홀 속에서 빛나는 사탄의 광채를 강하게 연상시킨다.³⁾ 이렇게 에드워드와 사탄을 관련시키는 것은 개인적 영광과 명성에 대한 왕의 야심을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결국은 시인의 반어적 관점과 영광스러운 이름과 자유의 실체와의 사이의 간극은 왕이 아직 전쟁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해 "정당한 복수"(i. 43)를 꾀하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제2장에서 장면은 런던의 왕궁으로 바뀌고 1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자유를 정의하고 있다. 에드워드의 아들인 클래런스(Clarence) 공작은 반복하여 영국을 선택된 국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란 상업상의 자유(freedom)를 의미한다고 하여 자유의 정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피력한다. 그에 따라 공작은 영국인들을 "상인"(ii. 34)으로 그리고 브리튼섬이 생겨난 이래로 하늘이 내려준 권리인 "바다의 지배자"(ii. 78~82)로 정의한다. 또 다시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똑같은 수사가 사용된다. 그래서 영국은 상업의 은혜를 입은 선택된 나라이자, 바다의 지배자로 창조된 나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영국은 이 신성한 권리를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작은 주장한다. 아이러니의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서 등장 인물들은 자유와 지배권, 상업과 전쟁을 맹목적으로 혼동하고 있다. 그래서 제2장은 그 당시의 궁정과 상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Blake의 분석적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Erdman의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⁴⁾ 클래런스가 영국의 배에 대한 프랑스의 공격을 생각한 것은 Erdman에 의하면 1778년 봄에 "영국을 침략하려는 프랑스의 계획을 영국 정부가 선정적인 방식으로 알리려 한"⁵⁾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암시를 통하여 Blake가 과거 궁정에서 상인들로부터 내정 원조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부가 상인들에게 상업에 방해되는 전쟁이 기실은 상업에 진정 이로운 것이라고 설득을 하는 상황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한다.⁶⁾ 왜냐하면 전쟁은 상업에 필요한 자원과 시장을 확장시키

3) Ibid., p. 106.

4) Erdman, *Prophet against Empire*, pp. 79~83.

5) Ibid., p. 79.

6) Ibid., p. 80.

기 때문이다. 더욱이 Blake는 *Paradise Lost*에 대한 인용을 통해 이 돈에 얽힌 동기의 성격이 진정 무엇인지를 밝혀 내고 있다. 클래런스가 묘사하는 영국의 모습은 풍요 바로 그 자체이다.

His native shore, and sees commerce fly round
 With his white wings, and sees his golden London
 And her silver Thames, thronged with shining spires
 And corded ships, her merchants buzzing round
 Like summer bees, and all the golden cities
 In his land overflowing with honey.

하얀 날개를 단 상업과 함께 “금빛 런던”과 “은빛 템즈”의 이미지와 정서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아이러니컬한 것이다.⁷⁾ 왜냐 하면 굳이 Erdman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Blake의 산문이나 시속에서는 도시며 강 그리고 상업 등이 이와는 반대로 묘사돼 있기 때문이다.⁸⁾ 클래런스가 예찬한 이 도시의 비전은 밀튼의 *Paradise Lost*의 지옥의 빛나는 도시를, 그리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상인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번창한 듯이 보이는 나라의 경제의 활력은 실상은 악마의 파괴적 힘이다.

제 3장에서는 다시 전장인 크레써로 이동되면서, 가신인 대그워쓰(Dagworth)는 전장에서의 퇴각으로 인한 공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에 그는 공포의 효과에 대한 은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그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터퍼는 바로 독수리이다. 만약 독수리가 날수 없다면, 그것은 독수리가 아니다. 더군다나 독수리의 함축된 공포,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와 상징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데, 자유의 아이러니가 법제화된 독수리의

7) Tolley는 이 장면이 Thompson의 *Liberty*나 *Summer* 등에 대한 인용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Cf. Tolley, “Blake’s Songs of Spring”, pp. 141~3).

8) Erdman, *Prophet against Empire*, p. 81.

상징과 정확하게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구속하려는 유일한 이성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3장에서는 잔인하면서도 호전적 애국주의라는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이 밝혀지게 되고, 더 나가서는 자유의 정체는 확장될 순전히 물질주의적이면서 이기적인 자유의 정신으로 강조되기에 이른다. 대그위쓰와 흑태자 (The Black Prince)는 일관되게 전투를 즐거움과 찬미의 행위들인 춤과 노래에 비유한다. 왕자는 클래런스의 전갈에 의하면 "싸움터에서 마치 모리스댄스 경연에 나온 젊은이처럼 춤을 추었던"(iii. 30~31) 인물이며, 클래런스는 크레씨 (Crécy) 들판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는"(iii. 137) 왕의 계획을 듣자마자 감격해 하며 갑자기 말문을 연다.

Now my heart dances, and I am as light
As the young bridegroom going to be married.
Now must I to my soldiers, get them ready,
Furbish our armours bright, new-plume our helms,
And we will sing, like the young housewives busied
In the dairy. My feet are winged, but not
For flight, an please your grace.

비슷하게 클래런스는 전투를 열망하는 병사들을 "전투에서 기뻐하고 트럼펫 소리를 듣고 날뛰며 춤을 추는 사람들"(iii. 170~1)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충심으로 전쟁을 사랑하면서 영광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클래런스를 왕자는 "진정한 영국인이자 그의 마음속에 자유의 정신을 간직한"(iii. 189~90)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도 전쟁에 그의 사랑을 찬도스 (Chandos) 에게 털어놓게 된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대한 사랑 말고도 이 장에는 찬도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자유의 힘을 분석해 놓은 장면도 들어 있다.

Courage, my Lord, proceeds from self-dependence:
Give but a slave his liberty, he'll shake
Off sloth, and build himself a hut, and hedge

A spot of ground. This he'll defend: 'tis his
 By right of nature. Thus set in action,
 He will still move onward to plan conveniences,
 Till glory fires his breast to enlarge his castle,
 While the poor slave drudges all day, in hope
 To rest at night.

다시 말해서 자유는 물질적 팽창을 가능케 하는 활력소이자,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남을 침략하도록 꼬드기는 힘이기도 하다. 찬도스의 이런 말을 듣자마자 왕은 다음과 같이 자유를 찬미한다.

O liberty, how glorious art thou!
 I see thee hovering o'er my army, with
 Thy wide-stretched plumes: I see thee
 Lead them on to battle:
 I see thee blow thy golden trumpet, while
 Thy sons shout the strong stout of victory!

자유에 대한 왕의 이러한 비전은 그가 숭배하는 여신, 다시 말해서 전쟁의 여신 미네르바 (Minerva)의 진짜 이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고 만다.

4장에서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인 야망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이 작품의 기준이 밝혀지게 된다. 대그워쓰는 야망에 대해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5장에서 가장 흥미스러운 부분일 듯 하다. 인간의 두뇌 속에서 성장하는 이 나무는 왜곡된 자유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구속된 독수리가 희생양이 되듯이 이 나무도 그러한데, 이 때 나무는 이기심을 상징하며, 이성의 소산이어서 자라면서 사람을 구속하게 된다. 만약 이 두 가지 상징이 온전한 인간을 의미한다면, 적절한 것이 되지만, 만약에 정신이나 이성만을 의미한다면, 이들은 후에 Blake가 *Songs of Experience*의 "The Human Abstract"에서 묘사한 "마음이 만들어 낸 족쇄 (the mind-forged manacles)"를 형성

하게 되는 것이다. 대그워쓰는 야망에 대해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근원이며,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지녀야 할 욕망이거나 열정"(iv. 13~15)이라고 윌리엄 (William)에게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야망은 자유가 이바지한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의 활력소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대그워쓰는 계속되는 윌리엄의 질문을 받고는 "그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왕을 프랑스로 인도했던"(iv. 23) 대의 명분이 곧 야망이라고 단정한다. 하늘이 내려 준 영국인의 '법적 권리(charter'd right)'인 자유는 단지 야망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왕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 실재 속의 자유로 불리었던 힘은 야망이다. 대그워쓰와 윌리엄간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개념이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된다.

Dagw. Thou art a natutal philosopher and knowest truth by instinct, while reason runs arround, as we have run our argument. Only remember, William, all have it in their power to know the motives of their own actions, and 'tis a sin to act without some reason.

Will. And whoever acts without reason may do a great deal of harm without knowing it.

예전의 잔인한 대그워쓰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그는 윌리엄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성보다 우월한 본능의 가치 그리고 이성의 위험스러운 허위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사람들이 행동하기 이전에 자신의 동기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이성의 경우 행위를 위한 이성만을 소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에서 대그워쓰는 월터 (Walter)경을 교묘한 논증으로 설득하여 이 가치관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아마도 이렇게 눈에 띄일 정도로 대그워쓰의 성격이 불일치를 보이는 까닭은 그와 같은 통찰력과 지혜를 지닌 그런 사람에게도 자유에 대한 수사의 힘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의 이 터무니없는 이중 기준을 평이하게 보여주기 위한 Blake의 구도 때문일는

지 모른다.⁹⁾

5장에서는 전쟁의 대립적 관점이 표명되면서 영국적인 자유에 대한 수사의 매혹적인 힘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극중에서 오직 윌터경만이 전쟁과 죽음이 자유와 같은 수사적인 표현을 갖지 못한 채 온통 파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대그워쓰는 애국심에 대한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죽음과 전쟁을 정당화한다. 윌터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해 탄식하지만, 클래런스 는 오히려 죽음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로 승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립적 논쟁에도 개의치 않고 윌터경은 “마치 거대한 시체 안치소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v. 43)라고 하는데, 이는 대량 살육에 대한 그의 묵시록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그워쓰는 이에 대응하는 다른 비전을 내놓는다. 이미 4장에서 전쟁의 진정한 대의 명분은 야망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I'll fight and weep, 'tis in my country's cause:
 I'll weep and shout for glorious liberty.
 Grim war shall laugh and shout, decked in tears,
 And blood shall flow like streams across the meadows
 That murmur down their pebbly channels and
 Spend their sweet lives to do their country service.
 Then shall England's verdure shoot, her fields shall smile,
 Her ships shall sing across the foaming sea,
 Her mariners shall use the flute and viol,
 And rattling guns, and black and dreary war,
 Shall be no more.

대그워쓰는 전쟁의 모든 실재에 미적 의미를 부여하고, 묵시록적 파멸은 지복천년의 번영을 누린 다음에야 도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구조 속에다 윌터경의 그 무시무시한 비전을 갖다 놓고

9) 또한 이러한 불일치는 Blake의 대변자인 William만을 통하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진리를 나타내려는 Blake의 바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서는 그 비전에 상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비록 대그위쓰의 비전이 그 악마적 성격—영국의 섬과 바다는 죽은 수많은 병사들의 피를 마시고 자라 날 것'이라는—과 번영의 토대인 상업적 성격—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지복천년과 애국에 대한 수사는 윌터경을 침략전쟁으로 끌어들이 만큼 강력한 것이다. 이처럼 5장은 영국적 자유의 개념이 어떻게 그렇게도 쉽사리 인간의 양심마저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진실로 영국적 자유는 인간의 정신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고 그 정신에서 자유를 뺏어가 버린다.

마지막으로 6장의 음유시인의 노래는 자유의 선택된 보호자로서 국가의 정체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Blake가 영국의 자유를 침략과 파멸 그리고 약탈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왕자에 의해 고용되어 그의 시중을 들고 있는 음유 시인은 브루터스 (Brutus)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며, 그가 엘비언 (Albion)에 도착한 이야기며, 그가 엘비언의 거인들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섬기는 황제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의 예언 등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에드워드 3세와 "트로이의 브루터스의 아들들"(vi. 1)인¹⁰⁾ 그의 전사들을 찬양한다. Erdman은 이에 대해 음유시인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The minstrel is Blake's bridge back to the eighteenth century, for his "song about the French and English," which fills the sixth scene, is at least as appropriate to the modern as to the medieval theme of conquest, while his other song, "about all us that are to die," is Blake's parody of the battle songs of modern Britain.¹¹⁾

음유시인의 노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브루터스와 그의 일행을 야만적이고 위협적이며, 약탈을 일삼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10) 이 어구는 트로이(Troy)가 멸망한 후 거기에서 도망 나와 영국으로 건너와서 는 브루터스의 지도 아래 나라를 건설했다는 전설을 언급한 것이다.

11) Erdman, *Prophet against Empire*, p. 72.

죽음을 몰고 엘비언에 도착하자마자 트로이인들은 엘비언을 무덤과 어둠의 땅으로 몰아넣는다.

They landed in firm array upon the rocks
 Of Albion: they kissed the rocky shore.
 'Be thou our mother, and our nurse,' they said:
 'Our children's mother, and thou shalt be our grave:
 The sepulchre of ancient Troy, from whence
 Shall rise cities, and thrones, and arms, and awful
 powers.'

새로이 생긴 도시에서는 “아침은 번득이는 칼로 인해 더디게 찾아 올 것이며”(vi. 50~51), “강대한 대양의 아들들”(vi. 21~22)이 살게 된 이 땅은 으스스한 군사 국가로 변하게 될 것이다. Erdman이 지적하고 있듯이¹²⁾ 음유시인이 대양의 아들들을 “야만적인 괴물들”(vi. 26)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Blake가 엘비언의 고대 거인족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 관점과는¹³⁾ 완전히 모순된 것이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제국에 대해 브루터스가 예언하면서 사용한 시어나 이미지들, 가령 “먹이를 찾는 독수리들”(vi. 44) 역시 이들이 약탈이나 일삼는 일족이었음을 알게 된다. 음유시인은 브루터스로 하여금 제국의 미래의 행로를 예언케 하지만, 물론 그 예언은 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음유시인은 그 예언이 에드워드 1세의 통치를 통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았거나 또는 크레쉴 전투에서 이제 막 그 예언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회고적 성격의 예언을 사용하는 기법은 여태까지 언제나 존재해 왔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꽤 효율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에 의해 의도된 국가의 성격과 국가의 건국에서부터 국가의 초월적 사명을 완성하기까지의

12) Ibid., p. 73.

13) "The Britons were naked civilized men, learned, studious, abstruse in thought and contemplation: naked, simple, plain in their acts and manners: wiser than after-ages."(cf. *Descriptive Catalogue V* (Erdman, 542)).

발전의 경과를 지적함으로써 지배자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통치와 정치를 정당화한다. 이와 같이 브루터스의 예언은 자유에 대한 호전적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정체를 확립하고, 브루터스를 고무시킨 초자연적 권위가 더해지면서 전투에 대한 제국의 진로를 마련하고 정당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예언이 끝날 무렵 드디어 군림하는 여신인 자유(Liberty)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Liberty shall stand upon the cliffs of Albion,
Casting her blue eyes over the green ocean:
Or, towering, stand upon the roaring waves,
Stretching her mighty spear o'er distant lands,
While, with her eagle wings, she covereth
Fair Albion's shore and her families.'

에드워드가 숭배한 진짜 이름이 이미 미네르바로 밝혀졌듯이 윗 행에서 드러난대로 이제 자유의 성상을 보면 우리는 그녀의 진정한 정체가 불길한 전쟁의 여신임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 Blake의 아이러니는 이 장면에서 아주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의 신하들은 독수리의 날개의 공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징적 엘리고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Blake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엘비언의 해안"에 미치고 있는 절대 군주제와 숨막히는 억압적 분위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유시인의 노래는 국민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암송함으로써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고 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Blake는 영원한 것보다도 일시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영국의 군사적 업적을 찬양하려 했던 세익스피어의 역사를 단순하게 수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더 나가서 그는 그 범위와 영향에 있어서 훨씬 더 광범위한 그 어떤 것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깊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아모스 (Amos), 호서아 (Hosea), 또는 에스겔 (Ezekiel) 등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

하고 이스라엘이 신이 내린 정당한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밝혀 냈던 것처럼, 역시 Blake도 영국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영국이 그 자유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밝혀 내고 있다. 또한 에드워드 3세가 미네르바로 숭배한 영국의 자유에 대한 Blake의 계시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해 하지않던 "the Day of the Lord"를 그들이 믿음과는 반대로 전한 아모스의 계시와 흡사한 것이다. Koch의 설명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the Day of the Lord'는 전통적으로 야훼 (Yahweh)가 이스라엘에 "빛과 구원 그리고 이웃 민족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줄 특별한 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Koch는 아모스가 그 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mos agrees that a day is imminent when God will appear in power. But he reverse the obvious conclusions: on that day Yahweh will not bring salvation to the people who are so specially bound to him, but utter disaster, darkness and death.¹⁴⁾

아모스의 생존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는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the Day of the Lord"는 야훼의 선택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절대적 구원에의 확신과 관련 있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모스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 때문에 이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파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리라 믿고 있던 개념을 전도시킴으로써 아모스가 단지 충격적인 말을 사용하여 곧 다가올 재앙을 예언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아모스가 그 개념을 전도시킨 까닭은 그것이 수사적 전략이면서 동시에 신과 그의 예언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품행의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영적·물질적 번영을 보장하는 신이 내린 생활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한 양식을 통해 강조하기 위해서 아모스는 쉽게 언

14) Klaus Koch, *The Prophets I* (Philadelphia: Fortress, 1984), p. 63.

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보장으로 잘못 해석되고, 곡해되었으며, 따라서 타락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힘으로 변화되어 온 그 개념을 선택하게 된다. 이 개념을 통해 아모스는 신의 실재와 인간의 실재의 중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와 똑같은 방식에 의해 Blake는 영국의 자유를 선택하지만, 이 개념 역시 기존 체제에 의해 미네르바로 잘못 해석되고 곡해되어 왔다. 그래서 Blake는 자유의 보호자로서의 영국의 정체는 신의 의도, 그 의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재앙이며, 이것들이 아침이 오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King Edward III"에서 Blake는 현재를 국가 역사에 있어서 절망적 상태로 보는 또 다른 역사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도 예언자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초기의 이스라엘의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타락의 행로를 밟으면서 중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Blake 역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영국의 역사를 바라본다. 브루터스의 야만성과 호전적 애국주의, 그리고 신성한 사명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침략과 약탈은 에드워드 왕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집트에서의 야곱(Jacob)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교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위는 계속해서 타락하는 형태 속에서 호서아와 에스겔의 시대까지 내려오게 되고 마침내는 묵시록적 재앙까지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규범적 사건들은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우주적 차원에서의 재앙, 즉 완전한 파멸을 예언한다. 구체적 예를 든다면 이것은 "King Edward III"에서 월터경이 이 세상을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체 안치소"(v. 43~44)로 생각하는 끔찍한 비전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비록 월터경의 비전이 영국 군대가 관련돼 있는 한에 있어서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크레씨-갈레(Calais)전투에서 에드워드가 승리함으로써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재앙이 퍼져 갔던 것이다. Erdman의 지적대로 갈레의 공성을 묘사한 "A Breach in a city the Morning after the Battle,"과 같은 한 벌의 그림인 "War

unchained. . . Fire, Pestilence and Famine following” 등은 Blake가 묵시록상의 흑사병을 크레씨-갈레전투의 절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¹⁵⁾ 따라서 윌터경의 비전은 클래런스가 그리던 군사적 영광과 상업적 번영 끝에 절정에 이르는 재앙에 대한 예언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Blake는 성서의 예언자들과 같이 역사적 순간 순간들을 ‘현재는 시작에서부터 궁극적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거와 미래를 배태하고 있다’는 포괄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Erdman은 군사적 영광에 대한 Blake의 반어적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극은 위에서 언급된 그림과 같이 우선 크레씨에서의 광폭한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 역병, 그리고 기근 등을 차례로 나타낼 ‘속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¹⁶⁾ 그러나 Blake가 “King Edward III”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쟁과 그 야만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을 고무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영국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영국의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이다. 음유시인의 노래가 끝날 무렵 Blake는 영국의 군사 행동의 활력소는 애초의 잔혹한 정신과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야망—물론 활력소는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이다—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King Edward III”는 비록 짧은 극이지만, 완결된 작품인 것이다.

Ⅲ. “Samson”의 경우

우리는 *Poetical Sketches*에서 마지막 작품인 산문시 “Samson”에서 실재의 신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통한 Blake 특유의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삼손(Samson)의 타락에 대한 진리를 밝혀 내고자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언자적 시인은 다음과 같이 그의 주제를 선언한다.

15) Erdman. *Prophet against Empire*. p. 75.

16) *Ibid.*, p. 74.

Samson, the strongest of the children of men. I sing: how he was foiled by woman's arts, by a false wife brought to the gates of death!

이 선언을 통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삼손의 비밀 혹은 그의 연이은 몰락, 즉 눈멀, 감금, 노예 생활 등에 대한 삼손의 고백을 듣게 되길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서두의 선언에 이어지는 것은 데릴라 (Dalila)의 고발과 해명 그리고 그의 출생의 고지에 대한 삼손의 설명이다. 삼손은 아직까지는 청년기에 있으며 그의 비밀을 다 털어놓은 것이 아니다. 삼손은 신중하게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Judges. 13: 5)고 했던 지시를 배 버린다. 그러나 그 설명은 관례적으로 보아 그만 두어야 할 곳 보다 앞서서 천사의 말 때문에 갑자기 중지된다. 주제를 이야기한 후에 언자적 시인은 다음과 같이 진리를 간구한다.

O Truth, that shinest with propitious beams, turning our earthly night to heavenly day, from presence of the Almighty Father! thou visitest our darkning world with blessed feet, bringing good news of Sin and Death destroyed! O white-robed Angel, guide my timouous hand to write as on a lofty rock with iron pens the words of turth, that all who pass may read.

진리를 간구하는 마지막 부분은 Blake가 스케치 전부를 삼손에 대한 묘비명으로 생각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그의 실제적인 몰락과 죽음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초반부와 중반부인 수태고지와 청년기가 다루어진 다. 비록 예언자적 시인의 선언을 고려해 보면 "Samson"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Edward III"와 "King John"의

17) Tolley는 이 부분이 묘비명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f. Tolley, "Blake's Songs of Spring", p. 73).

“Prologue”에서와 같이 이 스케치는 삼손의 청년기의 삶의 순간을 묘사하면서도 그 순간은 그의 삶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모든 순간 순간들이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이긴 하지만, Blake는 삼손의 생애중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선택하여 한꺼번에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다. 모비명과 비가의 장르를 이용하여 Blake는 삼손의 생애의 한순간 속에 존재하는 삼손의 전체적 삶과 그것을 초월한 무한의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손은 신의 용사가 육체적으로 몰락하기 오래 전에 이미 “불성실한 아내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사실을 드러낸다. Gleckner는 비록 Blake가 이들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문들은 밀튼의 대곤(Dagon)사원의 문¹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 문들은 삼손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문들이다. Blake에게 삼손의 타락은 신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의 마음을 데릴라에게 뺏겼을 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삼손은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다음과 같은 서두로 출생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¹⁹⁾

Hear, O Dalila! doubt no more of Samson's love: for that fair breast was made the ivory palace of my inmost heart, where it shall lie at rest: for sorrow is the lot of all of woman born: for care was I brought forth, and labour is my lot: not matchless might, nor wisdom, nor every gift enjoyed, can from the heart of man hide sorrow.

그의 “가장 깊은 마음”은 이미 데릴라의 “아름다운 가슴”인 “상아 궁전”속에 갇혀 있다. 그는 그의 영광스런 생득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의 구원이라는 그의 신성한 사명은 오직 “걱정”과 “슬픔”만을 가져오는 노예의 “운명”일 뿐이다. 그 한탄은 밀튼이 삼손

18) Gleckner, *Blake's Prelude*, p. 141.

19) Gleckner는 “Samson”의 서문이 삼손이 그 자신의 생득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f. *Ibid.*, p. 141).

의 *Samson Agonistes*의 서막에서 그의 생애의 밑바닥에서 내뿜는 한탄과 유사하다. Gleckner는 "Samson"에서의 극적 순간은 삼손이 유혹에 빠지기 직전의 순간²⁰⁾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의 생애의 절정에서 이미 삼손은 "배신당해 체포되고 두 눈이 뽑힌 채 짐승 같은 노역을 감당하게"(Samson Agonistes: 33~37) 된다. Blake는 다가오는 재앙이 이미 삼손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Phillips는 Blake가 *Samson Agonistes*을 계승하기 위해 그 순간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다.²¹⁾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삼손이 신성한 사명에서 데릴라와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을 선택함으로써 Blake는 삼손의 타락에 대한 성서와 밀튼의 관점을 바꾸어 버린다. 말하자면 내적 실재가 곧 실재임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삼손이 서두에서 그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데릴라에게 하고 있는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고 있다. 또한 축복, 영광, 그리고 경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삼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손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의 설명은 사사기(Judges) 13장 2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수태고지의 설명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Samson"에 등장하는 천사는 그 외모와 언술에 있어서 성서의 천사보다는 훨씬 더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사사기에서는 천사가 어떻게 해서 마노아(Manoah)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 천사는 단순히 그녀 앞에 어디선지 모르게 나타나서는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그의 메시지를 알려줄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amson"의 천사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an angel from the fields of light entered the house! His form was manhood in the prime, and from his spacious

20) Ibid., p. 140.

21) Michael Phillips, "Blake's Early Poetry", *William Blake: Essay in Honour of Sir Geoffrey Keynes* eds. Morton D. Paley & Michael Phillips (Oxford: Clarendon, 1973), pp. 19~20.

brow shot terrors through the evening shade! But mild he
hailed her—Hail, highly favoured!

천사의 인사는 Tolley의 견해에 의하면²²⁾ 누가 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성수태고지(Annunciation)를 알렸던 천사가 마리아(Mary)에게 행한 인사말²³⁾과 매우 흡사하다. Blake는 “Samson”으로 하여금 이와 흡사하게 인사하게 함으로써 구원자로서의 삼손이 그 잠재력이나 축복의 면에서 예수(Jesus)와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Samson”의 또 다른 차이점은 사사기와 천사의 신성에 관해서이다. 마노아가 천사의 이름에 대해 물었을 때, 사사기 속의 천사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니라(Why askest thou thus after my name, seeing it is secret?)”(13: 18)라고 대답하지만, Blake의 천사는 “My name is wonderful: enquire not after it seeing it is a secret”라고 대답한다. Tolley는 우선 천사의 대답을 이사야(Isaiah)서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 . .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for unto us a child is born, . . .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9: 6)는 문장과 연관시키고 있다.²⁴⁾ Gleckner는 Tolley의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천사가 그리스도(Christ)의 이름인 “Wonderful”이라고 하게 함으로써 Blake는 사사기 속의 말들을 바꾸지 않으며, 또한 그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를테면 Blake는 흥정역 성서(King James Version)보다 더 정확하게 히브류 원문을 표현하고

22) Tolley, “Blake’s Songs of Spring”, pp. 72~80.

23) “And the angel came in unto her, and said, Hail thou that art highly favoured, the Lord is with thee: blessed art thou among women (Luke, 1: 28).

24) Tolley, “Blake’s Songs of Spring”, pp. 72~80.

있는 셈이다. 그것은 성서의 천사의 대답을 축어적으로 번역하면 흠정역 성서의 번역인 "it is secret"와는 반대인 "it (the name) is wonderful"이 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²⁵⁾ 천사의 대답 속에 들어 있는 "Wonderful"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The Interpreter's Bible이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한대로 "이해를 초월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ineffable beyond comprehension)"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인 것이다. 비록 Blake가 "Samson"을 쓰고 있었을 당시, 히브리어와 히브류성경에 정통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그의 이름이 "Secret"라고 한 천사의 대답에 흥미를 가진 Blake가 그 정확한 의미를 조사하고는 흠정역 성서의 번역에 정확한 의미를 추가하면서 그 대답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듯 싶다.²⁶⁾ 어쨌든, 'Angel'이나 'Deliverer'의 첫 글자가 대문자인 반면 wonderful의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Tolley와 Gleckner가 추정한대로 이 단위가 고유명사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천사의 대답, 그의 인사, 그리고 그의 두 가지 선언은 삼손의 출생의 중대성과 구원자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Samson"에서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구원자에 대한 언급이 천사에 의해 단 한번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삼손의 역할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 사사기에서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Robert Alter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임 여성에게 있어서의 어린아이의 수태고지와 출생과 같은, 소위 "type-scenes"²⁷⁾중의 하나일 뿐이다. 마노아나 그의 아내 또한 구원자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마노아의 경우도

25) 개정 표준역 성서(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도 "it is too wonderful"로 번역되어 있다.

26) 히브리어에 대한 Blake의 지식의 유무에 대한 연구서로는 Arnold Cheskin, "The Echoing Greenhorn: Blake as Hebraist", *Blake/ An Illustrated Quarterly* 12 (1978~9) 등이 있음.

27)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p. 49.

이스라엘 (Israel)이 처한 역경에 특별히 연루돼 있지 않다는 것도 확실하다. 반면에 Blake의 "Samson"에서는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고통 속의 마노아는 단순히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구원자를 위해 기도를 한다. 외경심과 경의를 불러일으키는 형식을 통해 그 출생이 고지된 "오랫동안 소망해 온 구원자"로서 삼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축복, 영광 그리고 "놀라운(wonderful)" 신의 섭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태고지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 의해, 우리는 실재에 대한 대립적 비전을 생생하게 접하게 된다. 즉 신의 실재는 놀랍고, 은총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작용하지만, 인간의 실재는 눈멀고, 슬픔과 걱정 근심에 꼭 차 있으며, 구원에 대한 신의 계획을 저해하여 노예 생활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태고지에 대한 삼손의 서두는 장례식에 이용되는 비장한 애가이며, 삼손에게 출생의 고지는 곧 사형선고이자 오랜 기간에 걸친 노예 생활, 근심과 슬픔,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어떠한 선물로도 결코 돌려 받을 수 없는 노동이 현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서문과 함께 이어지는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대립적 비전, 즉 삼손의 이야기는 장례식용 만가이면서 동시에 은총에 대한 고지이기도 하다는 두 비전을 동시에 제시하는 놀라운 기법임을 입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는 또한 출생 이전에서부터 그의 청년기를 거쳐 비참한 그의 몰락에 이르기까지의 삼손의 인생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Samson"은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실재의 영역에 대해 Blake의 인식, 다시 말해서 '시간 속의 한순간은 진실로 무한으로 열려 있다'라는 그의 인식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그 인식에 대한 표현 양식—묘비명과 만가를 활용하는 양식—8세기 히브류 예언자들에게서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 Koch가 지적하고 있듯이²⁸⁾ 아모스는 세상에 대한 예언적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장례용 만가나 또는 '애가(woe-songs)'의 장르를 이용했던 첫 예언자이다.²⁹⁾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28) Koch, *The Prophets* I, p. 44.

이러한 표현 양식을 이용하게 된다. 장례용 만가는 "woe to [you, them, etc.]"으로 시작되며 묘지에서 불려지는 '사자에 대한 애도에 사용되었던 장르'이다.³⁰⁾ 그러나 예언자들은 아직 살아 있거나 인생의 절정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만가로서 이용한다. 예를 들어 미가 (Micah)는 사악한 무리들의 죽음에 대해 냉소적인 방법으로서 만가를 이용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는 그들에게 신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선언한다. 말하자면 미가에게 신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기 오래 전 이미 그들은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세속적 성공을 향유하고 있을 때 예언자의 비전은 실제의 심원함을 통찰하며, 사람들의 번영의 활력소가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될 파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눈으로 보이는 실재와는 상관없이 예언자들은 신성한 시각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실재를 선언하는 것이다. 삼손의 몰락에 대한 Blake의 제시는 언어 자체의 흔적이나 히브류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상징이나 이미저리 또는 사상을 초월하여 Blake가 그들과 실재를 바라보는 방법과 그 표현 양식, 즉 포괄적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포괄적 비전을 토대로 하는 Blake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은 언뜻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보이면서도 일부 비평가들의 비평처럼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시인에게서 발견되는 비논리적이면서도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점철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특징은 과거, 현재, 미래, 주체와 객체,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간파하는 그만의 독특한 포괄적 인식에 기인하는 바가 더욱 큰 것이다. 또한 이 점은 표면상으로는 중기와 후기예언시의 수사 전략과 기법들이 결여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초기의 작품

29) 예언적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장례용 만가를 이용했던 예로 Amos 6: 57, Micah 2: 1~2, Isaiah 5: 8~30 등을 들 수가 있다.

30) Koch, *The Prophets* I, p.47.

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King Edward III”에서 전쟁에 대한 Blake의 해석은 언뜻 보면 모호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의견상의 모호성은 시인이 다양한 차원에서 전쟁의 실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Blake는 이 작품 속에서 포괄적 역사관의 측면에서 사회적·국가적·신적(또는 국제적) 그리고 도덕적(또는 우주적) 차원의 갈등과 그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왕과 귀족들이 억압적 지배를 실행에 옮기는 바로 그 순간 갈등도 시작되며, 그 갈등은 압제자의 폭정이기도 하고 피압제자의 반역이기도 하며, 신의 분노이기도 하며 죄의 승리이기도 하다. 또한 전쟁의 원인은 정의나 형벌과 같은 신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죄, 폭정 그리고 애국자의 반역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희생자이기도 하고 행위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애매모호성은 Blake의 후기 예언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의 엘비언의 타락에 대해 많은 해석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그 사건에 대한 포괄적 시각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 힘이 인간적이든 신성한 것이든, 그리고 그 힘이 파괴적인 것이든 혹은 삶을 고양시키는 것이든 간에 힘의 영역 내에서의 모든 세력들은 분명히 모두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재앙의 원인은 역시 재앙의 결과이기도 하다. Blake의 인식은 인과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연대기순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통하여 모든 실재에 스며들어 있는 실재의 신성한 차원을 통찰하고 있다. “Samson”에서의 관심은 영국 역사에서 성서와 밀튼에게로 옮겨와 있기는 하지만, 역시 그 기본적 표현 방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Blake의 태도는 눈으로 보이는 실재와는 상관없이 신성한 시각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실재를 선언하는 예언자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삼손의 생애중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선택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묘비명과 비가의 장르를 이용하여 삼손의 생애의 한순간 속에 존재하는 그의 전체적인 삶과 그것을 초월한 무한의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Blake의 작가로서의 권위는 기존의 가치나 사상에서가 아니라 실재의 질서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상상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새로운 인식 방법은 다양한 통찰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Blake의 이러한 표현 방식과 인식 방식을 통해 실재의 질서에 대한 그들의 통상적 이해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Blake의 시는 독자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유 방식에 구속되어 있는 독자의 상상적 인식을 일깨움으로써 독자 개개인이 각자의 해답을 발견하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최대한도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시인으로서의 Blake가 염원하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은 현실 저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Altizer, T. J. J. *The New Apocalypse: The Radical Christian Vision of William Blake*.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 Press, 1967.
- Blake, William. *The Complete Poetry and Prose of William Blake*. ed. David V. Erdman.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1.
- Brown, Norman O. "The Prophetic Tradition," *Studies in Romanticism* 21 (Fall, 1982): 367~386.
- Erdman, David V. *Blake: Prophet against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9.
- _____. "Blake: The Historical Approach." *Modern Critical Views: William Blak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 1985.

- Ehrstine, John. *William Blake's 'Poetical Sketches'*. Pullman: Washington State Univ. Press, 1967.
- Fisher, Peter. *The Valley of Vision: Blake as Prophet and Revolutionary*.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60.
- Gleckner, Robert F. *Blake's Prelude: Poetical Sketch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3.
- Koch, Klaus. *The Prophets*. Vols. I & II. Trans. Margret Kohl. Philadelphia: Fortress, 1984.
- Lowery, Margaret. *Windows of the Morning: A Critical Study of William Blake's 'Poetical Sketche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40.
- Phillips, Michael. ed. *Interpreting Blak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8.
- Tolley, Michael Jr. "Blake's Songs of Spring." *William Blake: Essays in Honour of Sir Geoffrey Keynes*. eds. Morton D. Paley & Michael Phillips.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3.